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11월 5일, 창립 70주년 기념예배 온가족이 함께 풍성한 은혜 나눠

광림교회는 11월 5일(주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본당 대예배실에서 전교인이 함께 기념예배를 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1953년 중구 광희동과 쌍림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광림교회는 제5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선도 감독님 시절인 1978년 현재의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부흥의 기틀을 다졌다. 이날 기념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다시금 쓰여져야 할 거룩한 역사’(스 8:15~23)라는 제목으로 광림교회의 어제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진 1953년 북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며 고야사 절터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시작한 것이 광림교회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며 이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 제단에 영적인 지도자를 내려 주셨고,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에 감동하여 삶의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림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섬김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때 다시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광림교회는 신사동에 위치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상계, 부천, 분당, 하안, 일산 성전을 지어 독립시켰으며, 2014년 2월 광림동교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광림서교회를 분리 독립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회 건축에도 앞장서서 젊은 청

년들의 전도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군교회를 건축, 봉헌하였다. 지난 7월에는 창립 70주년 기념성전으로 동탄광림교회를 봉헌하여 동탄 지역을 비롯 경기남부지역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선교에도 역점을 두어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등에 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선교의 허브 역할을 할 미션센터의 건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잠비아미션센터를 봉헌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미션센터를 완공하고 봉헌을 기다리고 있다. 광림교회는 그동안 9개국에 11개의 미션센터를 세웠다.

창립 기념주일을 축하하는 행사도 교회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사회봉사관 5층에 있는 <광림역사관>을 재개관하여 기존에 있는 자료 정비를 비롯 비치된 물품이나 사진을 새롭게 바꾸고 단장하였다. 광림미술인선교회에서는 장천갤러리에서 20명의 회원들의

출품작으로 <TOLLE LEGE>전을 11월 26일까지 열고 있다. 청년부는 11월 12일 가수 공민지, 김복유 등이 참여하는 <콘서트 위십> ‘사랑에 대하여’를 BBCH홀에서 개최한다.

창립 주일인 11월 5일에는 모든 성도들과 기념 떡을 나누고, 남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택시데이 전도를 실시하여 교회로 오는 택시와 버스 기사들에게 전도선물을 전달했다.

이득섭 기자



어둠으로부터 돌이켜 빛으로 나아오라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속 9:12)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이 쓴 책 『팡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상은 천사와 같지만 실제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들이 엇갈려 갈등을 만들어 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유와 평화는 얻은 것 같았지만, 웬지 모를 불안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했으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의 간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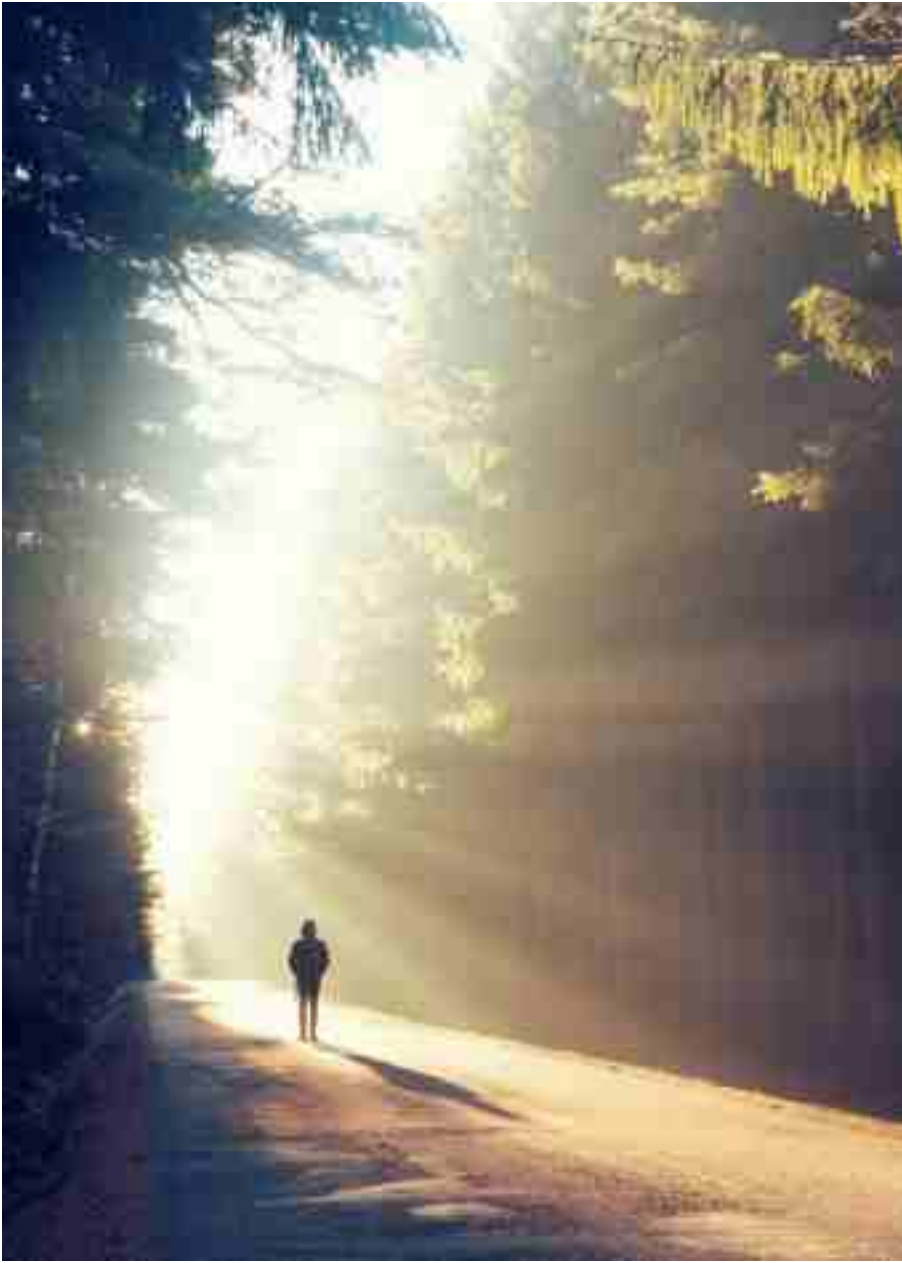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소망을 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회복과 새로운 창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둠의 세력에서 나아오라

스가랴는 본문 9절에서 “크게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심리적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된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막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둘로 나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두려움이 발전하면 공포가 되고 결국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많은 공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생각한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등 많은 것으로부터 공포를 느끼니



속 9:9~12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겠고 전쟁하는 활도 끌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간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공포 가운데 자신을 위장하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거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신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과 과거의 일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날마다 쇠잔해 갈지라도 심령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성숙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

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새로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킬 때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탕자는 그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과 자격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삶, 곧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간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새와 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안전과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과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9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늘 새로운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택시 전도데이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지난 11월 5일(주일) 택시 전도데이 행사를 교회 정문과 압구정대로 주변에서 2, 3, 4부 예배 전후에

진행했다.

이날 광림의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가능한 자가용 대신 택시를 타고 와 기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며, 내릴 때에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성도들이 택시에서 내릴 때와 탈 때 행사위원들은 준비된 선물을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면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며 따뜻하게 인사를 전했다.

정기석 권사(남선교회 국내본부장)는 “오늘 내리는 가을비도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해 주는 듯하네요. 예배 전과 후에 택시 기사님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 비가 잠시 잦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다시 거세지기를

반복하네요. 깜짝 놀라며 선물을 건네받은 기사님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꼭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연 장로는 “택시 전도데이 행사는 11년째 1년에 두번 부활절과 창립기념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에게 광림의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들이 승객들에게 복음을 대신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GMC 목회자와 함께 동행 심방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미국에서 뜻깊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동성에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 속한 교회 중 많은 수가 동성애를 반대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성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GMC(Global Methodist Church)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합류하게 된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교단의 대표들이 광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

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교회)과의 교류 및 한국적 목회의 탁월함을 알고 배우는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림교회는 9개 선교구와 함께 감독을 비롯한 교수, 목회자분들이 함께 동행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개 선교구는 사전에 심방 또는 속회(기도회) 일정을 계획하고, 통역으로 섬길 분들을 찾는 등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심방뿐만이 아니라, 교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회, 기도회를 통해 광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방 목회의 탁월함과 중요성, 더불어 새로운 목회적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방하고, 해마다 새롭게 제작되는 광림교회만의 심방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신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시지만 심방과 속회에 주의 깊게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궁금증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특히, 광림교회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세계적 선교를 위해 지금도 일하는 광림교회를 향한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구 목사들도 오랜 목회 경험을 갖고 계신 GMC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구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TOLLE LEGE> 미술인선교회 정기전



광림미술인선교회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절 기념을 겸한 <TOLLE LEGE>전을 열고 있다. 광림교회 웨슬레관 1층 장천갤러리에서 11월 5일(주일)부터 26일(주일)까지 4주간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에는 미술인선교회 회원 20명

이 참여했고 동양화, 서양화, 섬유미술, 사진, 도예, 문인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광림미술인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의 변혁을 꿈꾸며 2009년 광림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창립전을 가진 이래로

현재까지 총 29회의 정기전을 개최하며 11회의 기획전과 초대전을 열었다. 광림미술인선교회는 광림교회의 건강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방탕한 문화를 고치시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광림교회와 미술인선교회를 그 진원지로 사용하기를 기도해온 문화공동체이다.

11월 5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톨레레게(TOLLE LEGE)전 오픈예배를 통해 박지상 목사(교육청년실)는 대살로니가전서 5:16~18의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독미술인이 되기를 권면했다.

변영혜 기자

포토 뉴스



광림헤리티지 & 비전홀 리뉴얼 오픈
11월 5일 사회봉사관 5층에서
재개관식을 가졌다.



70주년 기념 포토존
본당 로비에 포토존을 설치해
창립 70주년을 기념했다.



총력전도 초청특강
3선교구는 10월 29일 김희진 교수의
강의로 치매 관련 건강 강좌를 열었다.

담임목사 동정



- 10/31 트리니티성서대학원 8강
- 11/1 수요 치유의신학
- 11/2 GMC목회자 특강
- 11/5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 광림 헤리티지&비전홀 리뉴얼 오픈
- 11/6~9 아시아 리더스 서밋(ALS)
- 11/9 스페셜 나이트
- 11/12 창립 70주년 기념콘서트 워십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

1953~1971



1



2



3



4



5



6



7



8



9

- 1 1953년 고야사에서 광희문 제2교회(광림교회 모체) 창립예배
- 2 1953년 9월 27일 광희문교회 주보
- 3 교회창립 2주년 기념예배
- 4 1959년 고등부 핑크스톤 선생님과 함께
- 5 초창기 남선교회 야외예배
- 6 초창기 여선교회 다과 봉사
- 7 1965년 4월 개원한 쌍림동 유치원
- 8 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 9 1971년 제5대 김선도 목사 취임

1972~1977



1



2



3



4



5



6



7



8



9

- 1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
- 2 공군사관 예배를 인도한 김선도 목사
- 3 초창기 임원들
- 4 초창기 성가대원
- 5 쌍림동 구성전
- 6 교회창립 20주년 기념관 정초식
- 7 1977년 김선도 목사와 기획위원회
- 8 감리교 갱신 총회 후, 총리원 헌판식
- 9 농어촌교회 돕기운동

1978~1989



- 1 2 1978년 신사동 배나무밭에서 본당 성전 건축 기공예배
- 3 1978년 천막교회 김선도 목사 설교
- 4 1979년 대성전 입당예배
- 5 1981년 4월 12일 누가의료선교회 창립
- 6 1985년 전교인여름수련회
- 7 1989년 총력전도주일
- 8 1979년 교회 전경
- 9 1988년 김선도 목사 성역 30주년
- 10 1988년 광림수도원 봉헌

1990~2000



- 1 1990년 2월 27일 본당 증축 기공
- 2 1991년 4월 1일 사랑의집 봉헌
- 3 1998년 11월 스테인드글라스 봉헌
- 4 1995년 7월 20일 광림세미나 하우스 봉헌
- 5 1995년 7월 27일 모스크바 광림선교센터 봉헌예배
- 6 1994년 김선도 목사 감리교 감독 회장 당선
- 7 1999년 9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교회 봉헌
- 8 2000년 6월 21일 튀르키예 안디옥교회 봉헌



2001~2021



- 1 2001년 6대 김정석 담임목사 취임
- 2 2002년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3 2003년 한마음걷기대회
- 4 2005년 광림수도원 에베소광장 봉헌
- 5 2007년 자이툰부대 방문
- 6 2006년 광림남교회 새성전 봉헌
- 7 2009년 국제광림비전랜드 봉헌
- 8 2010년 사랑부제주도올레길 순례
- 9 2010년 국제기독교청년전도대회 개최
- 10 2012년 슈박스 나눔

- 11 2012년 논산 진중세례
- 12 2017년 광림서교회 봉헌
- 13 2018년 광림북교회 봉헌
- 14 2013년 광림사회봉사관 봉헌
- 15 2013년 성령한국 청년대회
- 16 2018년 잠비아 선교
- 17 2019년 광림수도원 대성전 봉헌
- 18 2021년 광림 선한 나눔 운동
- 19 김정석 담임목사 서울남연회 제16대 감독 당선



2022~2023



- 1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역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 2 2022년 우크라이나 선교후원금 전달
- 3 2022년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 봉헌
- 4 2022년 KMC & UMC 선교전략회의
- 5 202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 감독 이취임식
- 6 2022년 11월 25일故 김선도 감독 소천
- 7 2023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잠비아 미션센터 봉헌 & 광림신학교 개교
- 8 2023년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 9 2023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
- 10 2023년 하디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성령한국 청년대회
- 11 2023년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팀 파견
- 12 2023년 장흥 빛의숲교회 신축 기공예배
- 13 2023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동탄광림교회 봉헌
- 14 2023년 제25회 통일성취기도회
- 15 2023년 제4회 KMC-UMC-WMC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9-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명을 받은 병사가 함께 처형당한 두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려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
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옆구리
를 창으로 찔렸다. 피가 쏟아져 나왔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예수가 죽은 그날, 늦은 오후에 아리마대 사
람 요셉이 왔다. 그는 큰 부자로 예수의 추종
자였다.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서 예수
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빌
라도 총독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고, 요셉은
하인들을 데리고 골고다에 가서 예수의 시신
을 수습했다.
그는 시신을 향유로 닦고 바른 후 깨끗한 세
마포로 잘 감쌌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묻
히려고 만든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
한 후, 하인들을 시켜 큰 돌로 입구를 막았
다. 당시 유대의 장사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었다. 예수를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
과 하인들은 돌아갔지만, 함께 따라온 막달
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남아서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다. 그들은 예수가 공언한 ‘사
흘 만의 부활’을 생각하며 마음이 놓이지 않
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다.
“총독님, 예수가 죽기 전 살아 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던 말이 이
제야 생각났습니다. 병사들을 보내어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
의 시체를 훔쳐다 숨기고는 ‘예수가 부활하였
다’고 하면서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
집니다. 시체가 없어지면, 예루살렘에 그 파
장이 큼니다.”
줄곧 대제사장의 말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던 빌라도 총독이 대답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요? 가서
자체적으로 지키도록 하시오.”
그날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문
을 봉인하고, 사흘 동안 철저히 무덤을 단
단히 지켰다.

▶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_ 이 작품
은 루벤스의 평생의 역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
자가에서 운명하고 내려지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 속의 축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주위로
서로 엉켜 있는 한 무리의 인물들이 보인다. 십자가
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중심으로,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 세 명의 마리아까지 이어지
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다. 작품 속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는 일에 동참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순간의 슬픔과 감정도 공유
하고 있다.
루벤스의 작품

▼ 안장되는 예수 그리스도_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
데모,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
면이다.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부조 작품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
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
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